

Ⅰ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Ⅰ

## 근로시간 단축이 생활 및 근로조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정희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간호학 전공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이 직종에 따라 생활의 변화와 근로조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4년 7월 이후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1개사업장 당 20명의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생산·판매직 227명, 사무직 226명, 관리·기술직 213명인 66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이었으며, 사업장 보건관리자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생활의 변화에서는 관리·기술직이  $3.07 \pm 0.32$ 로 변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3.06 \pm 0.36$ , 생산·판매직  $2.93 \pm 0.80$  순이었으며, 근로조건의 변화에서는 직종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보면 생산·판매직은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 생활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수가 500~999명인 경우 생활의 변화가 적게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은 노조가 있는 경우 생활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기술직은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생활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근로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생산·판매직은 남자인 경우에 근로조건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은 제조업인 경우, 근로자수가 1000명이상인 경우, 노조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기술직은 교대근무인 경우, 제조업인 경우, 남자인 경우에 근로조건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여성 근로자, 비제조업이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